

하위문화 패션스타일 유형(2)

양 미 경

한성대학교 의생활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A Study on the Patterns of Subcultural Fashion Style(2)

Mee-Kyoung Ya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5. 8. 13. 접수; 8. 29. 채택)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atterns of the subcultural fashion styles in the 20th century in terms of various subcultures in the period. First, we define the concept of the subcultural fashion styles and in turn, examine the subcultural fashion styles from 1950s to 1990s while focusing on the way each generation resisted against the main stream through its styles.

The subcultural fashion styles examin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are mainly British and American styles. some of European and Western Indian styles are also included. In this paper, a subcultural fashion style is understood as a way of deviate or resistant expression within a society. It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main style by deliberately and publicly asserting its own identity. And as a result, it is realized in a form of a fashion with its repressed subconsciousness, with resistance to the alienation from the society, and with deviation from the normative ethics and the morality of a society.

In conclusion, we classify the subcultural fashion styles into two patterns based on their form of resistance which tries to distance itself from the ritual code of the day: the dressing of the escape from time and the dressing of the escape from space. The first pattern is characterized by nostalgia or futurism, and includes psychedelic, rastafarian, raver, techno style. The second pattern includes surfer, folky, hippy, new age traveller, cyberpunk style. Especially, an emphasis is given on ethnicity, naturalism, or a closed space within a city in dressing of the escape from space.

Key Words: subcultural style(하위문화 스타일), subcultural fashion style(하위문화 패션스타일),
subcultural fashion style pattern(하위문화 패션스타일 패턴)

I. 서론

어떤 집단이나 계급의 문화는 그 집단이나 계급

의 특징적이고도 독특한 삶의 양식, 의미, 가치들과 제도, 사회적 관계, 신앙체계, 원규(原規)나 관습, 객체들과 물질적 삶의 용도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관념들이기에, 신체와 의복을 통하여 급기시된 표현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은 기존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을 패션스타일로

Corresponding author ; Mee-Kyoung Yang
Tel. +82-11-9049-4091, Fax. +82-2-760-4484
E-mail : mkyaang@hanmail.net

표현한 것으로서, 기존 복식 문화와 확연히 구별되는 독자적 패션문화가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문화는 생존과 전통가치 사이의 정체성 갈등이 반영된 문화이며, 하위문화 성원들의 생존 갈등 자체가 그 문화적 성격을 정의하기 때문에, 하위문화는 그들의 현실을 강제하고 억압하는 지배문화에 대해 저항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 하위문화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질적 성향들은 자기 나름의 표현 형태인 의복 스타일을 통하여 지배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내어지며, 이러한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이 지배적 패션문화에 대하여 가하는 문화적 충격은 그 기이함과 신기함으로 인해 오늘날 하이 패션디자인의 원천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 동안 전개된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저항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 고찰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서, 그 갈등적 표현 형태가 기존의 규범적인 복식 규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하나의 스타일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저항방식 유형을 밝히고자,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정의와 형성, 특징들을 규명하고 그 스타일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세기 하위문화 패션스타일로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이며,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종류와 개념, 용어와 구성 내용들은, 에이미 헤이(Amy de la Haye)와 캐티 딩월(Cathie Dingwall), 테드 폴헤머스(Ted Polhemus)와 제수 타카무라(Zeshu Takamura)에 근거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들은 연구 자료의 한계 때문에 영국 미국 기타 서인도 제도의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문헌자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I.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이론적 배경

1.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정의

1) 하위문화의 개념

어떤 사회든 지배적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여러

개의 문화들이 생성되며, 하위문화는 이러한 지배 문화에 대한 하위집합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하위 문화는 더 큰 범주의 계급문화의 요소들을 공유하지만 그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문화는 한 집단의 사회적 관계가 구조화되고 모양 지어지는 방식이자, 그들 모양들이 경험되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방식이기에, 하위문화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 속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위문화는, 하나 또는 다른 보다 큰 문화적 네트워크 내에서, 부분집합 즉 보다 작은, 보다 국지적인 차별화된 구조들을 말 한다. 또한, 하위 문화들은 금지된 형태(의상 행위 코드의 위반, 위법 등)로 금지된 내용(계급의식, 차별의식)을 표현하는 불경스런 집합들이며, 종종 그 의미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정의 된다. 그러므로 하위문화는 중심적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행위이며, 구체적인 문화정체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스타일 행동 말투 등을 통해서 기성 부모세대 문화 혹은 지배 계급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라고도 볼 수 있으며, 부모문화 속에 남겨진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비록 주술적으로라도, 표현하고 해결하려 잠재적으로 기능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하위문화 개념은 지배문화로부터 이탈된 현상이며, 광범한 문화 즉 보다 큰 문화적 네트워크 내에서, 보다 작은 부분 집합 즉 국지적인 차별화된 구조들로 정의한다.

2)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정의

하위문화 스타일은 일반문화 주체들의 스타일과 다르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즉 타인들의 정체성과 차이를 두려는 의도적이고 공공연한 형태들을 띤다. 억압된 내면의식, 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검열된 소외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행위의 결과이다. 지극히 제한되어있는 삶의 선택, 소외된 의견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통념을 거부하는 자유에의 열망 등은 정상적 규범체계가 애초부터 배제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것들은 신체에 각인된 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신체와 내적 에너지가 개인의 취향과 감수성과 패션 같은 문화형식으로 변형될 때 형성되는 스타일은, 내적인 취향과

감수성이 신체에 각인되는 개성의 표상적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사회적 관심, 경제적 불만, 정치적 분노 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의상과 신체장식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배타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구성원들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으로써, 스타일은 하위문화 정체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의 하위문화 스타일(subcultural style)은 특별한 하위문화 집단과 관련된 드레스 코드로 정의되며, 지배적 주류 패션과 다르고, 스타일을 통한 저항 형식을 가지며, 같은 의견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열망을 함축하는 스타일이라 말할 수 있다.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은 흔히 하위문화들의 물질문화로서의 의복과 장식을 서술하는 말이며, 그것은 보다 개인적이며, 대체로 젊고, 패션무대로부터 나오지 않은 스타일의 표현을 포함하며, 특히 현대적 의미로는 저항적 의미를 함축하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의 종류와 개념은, 주변부화 되어 있는 스타일에 한하였으며, 이들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나온 용어와 구성 내용들은 에이미 헤이와 캐티 딩일이 만든 범주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하위문화 명칭 다음에 붙여지는 <스타일>은 양식(樣式)을 의미하는 본래적 개념이 아닌 하위문화 스타일의 함축적 표현임을 밝혀둔다.

2.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유형

1)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발생

하위문화에 속한다는 것은 생활양식이나 성, 정치 등에서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하며, 하위문화 스타일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하위체계(subsystem)로 의상, 의식, 언어, 음악 등이 있다. 사회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있지 않은 집단이나 계급은 문화 내에서 그들의 종속적인 위치나 경험을 표현하고 실현할 방법을 찾으며, 지배적 질서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투쟁으로 돌입하기도 하고, 수정이나 협상, 저항, 혹은 그것의 지배 즉 그것의 체계모니를 전복하려 추구한다. 또한, 하위문화들이 표상하는 체계모니에의 도

전은 스타일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반대들은 숨겨지고, 모순들은 외양의 심오하게 피상적인 층위 즉 기호들의 층위에 과시되어지기에, 하위문화 스타일은 의미화(signification)를 포태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은 노동 계급 하위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계급 문화의 기반인 일련의 관계와 지식, 사물, 경험의 네트워크가 붕괴하면서, 노동계급의 성인들 보다 십대들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했으며, 젊은 소비자 시장의 성장과 새로 발생한 청년 산업(youth industry)은 생 재료들(raw material)과 상품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들은 독특한 스타일의 구성으로 집단에 의해 이용되었으며, 사물과 상품들의 특별한 선택을 행동적으로 구성하여 스타일화 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의미와 용도로부터 다른 의미와 용도로, 이들을 파괴하고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즉, 단순히 전유되고 입혀진 사물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양식화(stylization)의 행위 즉 행위들과 예측을 지닌 대상들의 행동적 체계화로서, 응집적인 독특한 방식의 모양과 형태로 체계화된 집단 정체성을 만든다.

하위문화에서 스타일의 창조적 발생 원리는, 집단이 사용하는 사물과 그들의 용도를 제한하고 구조를 만드는 예측들과 행위들 사이의 호혜적 효과이며, 지배문화 코드가 이들에 부착한 많은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방식으로 극복하고 협상하고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빌려오고 재생된 조각들을 새로운 독특한 스타일적 앙상블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발생한다. 상징적 대상물들 즉 의상·외모·언어·의례행위·상호작용의 스타일이, 집단의 관계상황 경험과 함께 통합(unity)을 이루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상징적 측면은 사회적 토대로서 집단의 예측, 행위, 구조,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으며, 하위문화 스타일은 집단 관계와 행위들, 맥락의 내적 구조에 기초한다. 하나의 하위문화적 스타일이 하위문화 성인들에게 의미화 하는 것, 즉 독특한 하위문화 속에서 재조립되어진 전유된 대상들은 집단생활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표현하고 공명하도록 만들어지기에, 선택된 대상들은 본질적으로 그 형태에서, 하위문화의 관심들, 행위들, 집단구조, 집합적 자기 이미지

와 상응된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위문화 성원들이 지니고 반영하는 중심적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대상들이며, 대상은 의미와 합쳐져 하나의 기호를 구성하고, 그러한 기호는 담론의 독특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조립 되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전유되어 입혀진 사물이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스타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양식화(stylization)의 행위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체계화된 집단 정체성을 지닌 모드들이 연결체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유형

하위문화 집단에 의해 이용되는 대상들은 독특한 스타일적 구성, 즉 사물과 상품들의 선택을 행동적으로 구성하여 스타일화 되어진다. 폴헤머스는 일반적으로 스트리트 스타일에는 드레싱 업(dressing up)하는 것과 드레싱 다운(dressing down)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 움직임이 있다하였고, 버나드(Bernard)는 패션과 의복에 있어 저항의 형태는 전도(reversal)와 거절(refusal)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계급과 성 정체성의 지배적 개념에 대하여, 그에 따른 특권을 전도함에 의해 도전하거나 모든 형태의 계급과 성 정체성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하였다. 햅디지는 브리콜라지(bricolge) 개념을 하위문화 스타일이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레비 스트로스(Levi-Strauss)가 원시민족들에 의해 이용되어진 주술적 모드가 사물들 사이의 연결체계로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개념으로서, 이들 연결된 주술적 체계들은 공통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 요소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즉흥적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존 클라크(John Clarke)는 재의미화(re-signification) 분류 방법에 의해 하위문화 스타일의 구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위문화가 의미 있는 스타일과 외양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의미 체계로부터 빌려온 사물을 하위문화 용도를 통하여 하위문화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된 다른 코드와 혼합하여 주어진 의미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과 부가예 의해 다른 사회적 집단에 의

해 사용되거나 만들어진 사물을 수정하려는 것, 주어진 의미를 강화 과장 고립하여 변화시키려는 것, 그리고 집단의 성원들만의 비밀스런 언어나 코드에 따라서 사물을 혼합하는 것 등등을 말한다.

폴헤머스와 버나드의 개념, 존 클라크의 분류 방법은 하위문화 스타일의 다양한 일탈적 저변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햅디지가 주장하는 브리콜라지 개념도 무한한 콤비네이션적 구조를 주장할 뿐이어서 하위문화 패션스타일 유형의 이론적 틀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은 일반문화 스타일과 다르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도적이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형태들을 가지는 동시에, 억압된 내면의식, 사회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저항, 윤리적 도덕적 관념으로부터 일탈 등이 패션 형식으로 변형되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탈의 방편인 저항의 형식을 지배적 패션문화로부터의 고립과 회피를 기본으로 하는 성향들을 대상으로, 기존형식의 사물을 양식화한 혼합방식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과거로의 회귀성향과 미래지향적 성향을 주 내용으로 시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을 시간회피 형으로, 또한, 기존 사물들과의 혼합방식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이국적인 것을 지향하고, 자연에로의 회귀성향 등을 주 내용으로 공간적 특성을 나타낼 때를 공간도피 형으로 나누어 분석틀로 삼았다.

Ⅲ.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유형분석

하위문화스타일은 하나의 언어이다. 하위문화 집단들이 새로운 하위문화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상들은 기존 체계 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새로이 만든 조합 속에서는 다른 메시지로 변형된다. 변형과 재배열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 새로운 스타일의 언어를 말한다. 스타일이 형성되는 대상은 하위문화 집단들에 의해 전유되어, 집단 성원들만의 언어나 코드에 따라, 기존형식의 사물과 혼합하여 사용되며, 이 혼합방식이 기존형식으로 부터 고립되고 회피되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유형들은 시간회피 형과 공간도피 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시간회피 형

하위문화 집단들이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전유하는 대상들은 그들만의 언어나 코드에 따라, 기존형식의 사물과 혼합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들고, 새로운 메시지로 변화된다. 이러한 혼합방식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과거로의 회귀성향과 미래지향적 성향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유형을 시간회피 형으로 보았다. 사이키델릭(psychedelic style),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 style), 레이버(raver style), 테크노(techno style)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이 포함된다.

1) 사이키델릭 스타일

1964년 모드들이 2개의 집단으로 갈라지면서, 과시적이고 강렬한 것을 강조하는 사이키델릭이 나타났다. 이 하위문화는 청년 반문화 특히 히피 하위문화와 관련이 있지만, 하위문화가 진행되면서, 히피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면에, 사이키델릭은 반문화 혁명을 인공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이나 도구에 의존하려는 점에서 두 스타일은 스타일적으로 관념적으로 명백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사이키델릭 스타일은 레이버, 테크노, 사이버펍크 스타일의 근원이 된다.

<그림1>은 사이키델릭의 영향을 받은 미치 미첼(Mitch Mitchell)의 핸드 페인트 재킷이다. 현란한 형광색과 모티프, 줄줄이 단 진주 단추가 사이키델릭 스타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시대 스타일은 생생한 색상과 무늬의 불협화음, 브레이드 같은 장식이 과잉되게 더해진 것이 특징이며, 번쩍이는 우주 시대적 옷감 같은 합성 직물의 사용은 미래적 진보적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하학적 실루엣과 디테일, 패턴 등은 우주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는 바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색상과 과잉된 장식들로 인해 의복은 점점 환상적이고 여성적으로 되어갔다.

또한, 사이키델릭들은 정신적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적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직물, 색조,



<그림1> 사이키델릭 스타일
Sims, J. (1999). Rock Fashion, p.68

LSD 등이 현대적 삶의 황폐함으로부터 도피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위문화 스타일 역사에서 사이키델릭은 이국풍으로 환영받았으나, 어떤 점에서 이들은 미래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원래적 모드들(mods)의 스타일을 단지 확장한 것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라스타파리안 스타일

라스타파리안 운동은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예가 왕이 된 후 자메이카 킹스턴의 게토에서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라스타파리안들은 불안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위하여, 자신들의 근원을 에티오피아 고대 문명에서 찾았고, 그에 고무되었다. 신화는 재해석되고 자메이카 흑인들의 혁명적인 잠재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고, 평화로운 인내, 개인의 존엄성, 자연의 조화에 대한 재발견을 강조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라스타파리안들은 그들의 라스타파리안 신조를 표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국기의 색으로 된 티셔츠를 입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인 그들의 신조는 복식에 반영되어, 천연 재료만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천연직물과 장식들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드레드록(dreadlock) 장식이 특징적이다. <그림2>에서 보는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은, 아프로(afro) 스타일이 나타날 때까지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부름의 상징이었으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수적



〈그림2〉 라스타파리안 스타일
Polhemus, T. (1994). Street style, p.78.



〈그림3〉 라스타파리안 스타일의 하이패션
Rifat Ozbek. S/S1991 작품
Gedr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162

흑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던 직선적인 머리 스타일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며, 백인사회에 대한 전적인 거부를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구약성서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가르침을 엄격히 따르는 상징이었다.

영국에서 이 스타일은 1960년대의 루드 보이 스타일(rude boy style)에서 이어진 것이며, 라스타파리안 운동 추종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상하는 라스타(rasta) 스타일은 76년경 출현한 청소년들의 저항적 하위문화였던 펑크(punk)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당시 하이패션에도 영향을 끼쳐, 21세기의 미래 낙관적 세계화(globalization)를 반영하는 스타일 경향이 있었으며,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슬람이나 보헤미안적 멋이 에스닉한 감각을 가지고 세계패션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1991년 오즈벡(Rifat Ozbek)의 작품인 <그림3>은 그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커다란 황금색 모자와 초록색 빨강색 등의 의상이 하이패션에서의 라스타파리안적 경향이 농후한 작품임을 보여준다.

3) 레이버 스타일

레이브(rave)는 1980년대 말 반합법적인 창고 파티(warehouse parties)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유분방한 정신으로 엑스터시 마약과 포스트-디스코 하우스 음악을 즐겼다. 이 하위문화는 히피들의 자유분방한 정신과 여피(yuppie)문화가 합쳐진 것이다.

레이버스타일은 1970년대 후반의 말끔한 캐주얼 룩에 반대하여, 후드가 달린 스포츠 상의, 훌치기염 혹은 사이키데릭 무늬가 있는 지나치게 헐렁한 큰 티셔츠,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스케이터 룩과 통합된 비치 스타일(beach style)이었다 <그림4>. 크고 헐렁한 옷들은 춤추기에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밝고 대담한 사이키데릭 무늬는 그들의 환각적 정신에의 경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스타일의 특징인 스마일 얼굴 디자인은 원래, 히피들이 환각적 약물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최초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레



〈그림4〉 레이버 스타일
Haye, A. & Dingwall, C. (1996). S.S.S. & S., p.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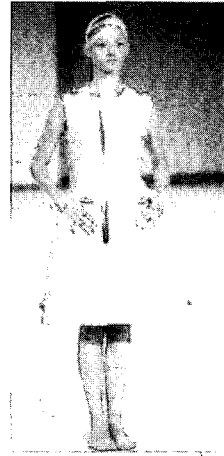
이버들에 의해 리바이별되어, 반항의 상징적 모티프로 사용되었다. 켈팅한 나일론 재킷, 배기 바지(baggy dungarees), 뉴 에이지 티셔츠나 유로 캐주얼 재킷 같은 옷들은 추운 야외에서 밤새 춤을 추는데 적합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와서는 많은 수의 록으로 해체되었다. 이들의 도덕적인 해이와 나태함이 지나치게 큰 크기의 특징적인 의복에 표현되어 있다.

4) 테크노 스타일

테크노는 1980년대의 컴퓨터 작동 사운드, 작곡 테크놀로지와 관련되며, 특징은 비트에 몰두, 전자 장비로 만들어지는 리듬을 최면적인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이 하위문화는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북유럽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이다. 테크노들은 바깥세상과의 화려한 스타일적 혼합 대신에, 자신들만의 스타일적 고립을 택하여 비계급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으며, 테크노 스타일은 자신들의 빠른 리듬의 합성음악 만큼이나 모방을 불허했지만, 이들의 의상은 비-보이 스케이터 레이버 스타일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과 미래 지향 때문에 테크노들의 스타일 표현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연출이 특징이다. 원래 테크노에 전형적인 복식인 페티시(fetish)한 검정 가죽 옷이 기본이고, 공상적 우주공간과 행성(planet)을 암시하는 황금색과, 우주적 섬광의 특수 효과를 발하는 고풍택 섬유재료, 미래적 디자인의 질은 선글라스, 손가락 없는 장갑 등이 사용되었다.

직물기술의 발전은 점차 의복의 외관에 영향을 끼쳐, 광택 나는 직물, 신축성 있는 직물, 메탈이나 플라스틱으로 짠 직물, 컴퓨터로 박는 시퀀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테크놀로지를 또 다른 디자인의 도구로 사용하여, 색다른 형태의 록의 창출에 기여를 하였다. 테크노 스타일이 하이패션으로 채택되어진 <그림5>는,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이 A/W 1999/2000 시즌에 발표한, 100% 유리섬유로 된, 모터로 조작되는 비행기 드레스 (airplane dress)이다. 이 살라얀의 드레스는 의복 구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식의 도래를 상징한다.



<그림5> 하이패션의 테크노 스타일
Hussein Chalayan A/W 1999/2000 작품
Gedr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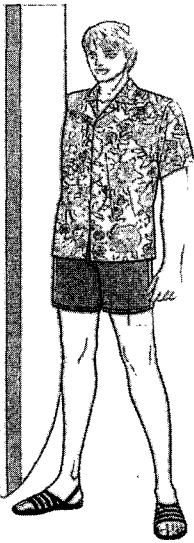
2. 공간도피 형

하위문화 스타일들은 기존 지배사회의 의미의 변형과 재배열을 통해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어 새로운 스타일의 언어를 말한다. 어떤 하위문화 스타일들이 그들만의 언어와 코드에 따라, 기존 사물들과 혼합됨에 있어서, 그 혼합방식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이국적인 것을 지향하고, 자연에로의 회귀성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할 때를 공간도피 형으로 유형분류를 하며, 서퍼(surfer style), 포크(folky style), 히피(hippy style), 뉴 에이지 트래블러(new age traveller style), 사이버펑크(cyber punk) 하위문화 패션스타일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1) 서퍼 스타일

미국의 상층 노동자, 남성 중심적 하위문화인 서퍼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현저한 소비 형식으로서의 여가와 개인주의이다. 서퍼라는 용어는 1950년대 이후 파도타기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것으로서, 서퍼들은 스포츠를 삶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공헌이 있다. 그들의 자연에 대한 도교적 태도는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1950년대에는 너무 이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 스타일은 일종의 컬트 장르이다. 태양과 모래사장, 섹스, 개조한 자동차, 자동차 경주 등과 관련된

서프의 생활방식은 극단적으로 한가롭게, 의복 스타일을 루즈하고 캐주얼하게 선택하였다. 대담한 줄무늬, 슬래시, 태운 피부, 염색한 머리, 맨발, 단순한 샌들의 오리지널 룩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오늘날 까지 에스레틱 룩 (athletic look)에 영향을 끼친 룩이 되었다 <그림 6>. 칼 라거펠드의 1991년 S/S시즌 작품 등, 미국에서 발생한 이 에스레틱 룩을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적용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들의 밝고 대담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은 독특한 것이다. 1950년대 이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있었다.



<그림6> 서퍼스타일

Takamura, J. (1997). *Roots of Street Style*, p.97

2) 포크 스타일

포크들은 시골 공동체의 포크음악 전통에 그 근거를 둔다. 도시와 교외에서 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배경음악처럼 시골에 뿌리 하였고, 구식의 전통적 시골생활에의 동경이 포크들의 특징이기에, 1960년대 히피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들이 주로 입은 코듀로이 바지와 재킷은 포크들의 순수 지향적 꾸밈없는 스타일을 상징하며, 여자들이 입은 꽃무늬 스커트나 블라우스는 포크들이 좋아하는 시골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자연히 의복 장식에 있어서도 밝은 색과 장식을 좋아했다. 특히 포크 스타일 중에서도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 주목받았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슬로피 조 스웨터인 <그림7>은, 그들의 후예인 히피 하위문화에 와서 이국적으로 영감을 받은 꽃무늬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 스타일은 천연섬유와 천연염료로부터 나온 자연 색상과 손으로 수놓은 자수의 사용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흠의 소박함에의 강조는 이 스타일이 시골 생활로부터 진화한 것이며, 이 같은 자연친화적 미학과 태도로 보아, 이들이 히피 하위문화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7> 슬로피 조 스웨터

Baker, P. (1991). *Fashions of Decade: The 1950s*, p.54

3) 히피 스타일

1960년대 반문화는 출세 교육 도덕이라는 전통적 개념에 도전하였고, 반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히피였다. 히피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 자유로운 민속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동경과 실현을 삶의 목표로 삼은 집단들이며, 대개 약물사용, 자유, 반중산층적 태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였다. 히피 스타일은 엘리자베스 라우즈가 말하는 4가지 히피 스타일의 속성, 즉 에스닉 스타일, 노스텔지 스타일, 작업복 스타일, 군복 스타일 등의 복합체로서 단일한 공간적 도피라는 범주에 넣기가 문제이나, 어느 스타일에서나 미세한 부분에서의 복합

성은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색인 에스닉과 노스텔직한 경향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넓고 바랜 오래된 중고나 골동품 의상, 수염과 긴 머리, 훔치기염색, 낡은 청바지, 모자, 구슬 목걸이, 헤어밴드, 술, 샌들이나 맨발, 꽃무늬 집시 풍 의상, 인디언 튜닉 등을 여러 겹 겹쳐 입는 스타일 등 추레한 차림새가 히피들의 주된 모습들이다. 남자들은 긴 로브에 긴 머리로 여자들과 똑같은 실루엣을 지녔는데, 이것은 남성성에 관한 사회의 관념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그들의 복식은 사람들이 남녀를 구별할 수 없는 위반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히피들의 치장방식은 사이키델릭하고 에스닉하고 로맨틱한 관점까지 모두 가져와 장식하였기에, 그 내용상 매우 복합적이다. 또한 히피들은 패션은 사회가 부여한 체계이며,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 스타일은 신체나 사회적 억압이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목적이었고, 자유로움의 추구가 목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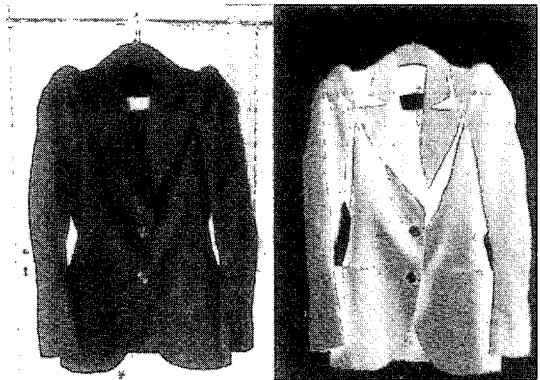
히피 스타일도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하이패션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치장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에 영감이 되었다. <그림 8>은 돌체 앤 가바나가 1993년 S/S 히피 스타일을 주제로 발표한 하이패션화한 히피 스타일로서, 옷감, 색채나 디테일, 장식의 사용이 기존의 디자인 방식을 벗어난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그림8> 패션 히피
Dolce & Gabbana S/S 1993 작품
Haye, A. & Dingwall, C. (1996). S.S.S. & S., p.116

4) 뉴 에이지 트래블러 스타일

트래블러는 여행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일컫기 위하여 1980년대 동안 영국에서 사용한 용어이며, 그들이 공유하는 영적인 신앙 때문에 뉴 에이지(new age)라고도 불리었다.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이 스타일의 특징은 자연에의 친화와 뉴 에이지 정신(new age spiritualism)으로 요약되며, 펑크들의 이념 성향이 합쳐지는 결과, 펑크스타일과 히피 스타일이 뒤섞여 표현되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일부 디자이너들은 환경친화 소재나 환경친화 생산과정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하이패션에 있어서의 에코 패션(eco fashion)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촉발되었다. 또한, 이 스타일의 영향중의 하나가 해체주의인데, 벨기에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가 해체주의(deconstructionist)의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그는 기존의 관습과 인습을 모두 배제하고, 신체의 프로포션이나 미의 기준에 대한 미학적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복에서 만드는 과정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색채보다는 의복의 구성과 형태를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그림 9>는 마틴 마르지엘라가 1989년 S/S 시즌에 발표한 피트한(fitted) 재킷으로, 지나치게 좁은 진동에 지나치게 넓은 소매를 끼워 넣음으로써 신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별적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을 표현하였다. 1977년 그가 발표하였던 박테리아가 도포된 의상이나 그 외의 작품에서 보듯이, 헌것을 재생하여 찢고 뒤집고 하여 슬기와 지



<그림9> 해체주의 스타일
Martin Margiela S/S 1989 작품
Gedr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146

퍼를 걸고 나오게 하는 테일러의 기술을 보여주는 마르시엘라의 재생기법은 미학적인 동기보다는 환경적 동기가 우선인 것이었다. 이처럼, 기존의 의상을 재사용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뉴 에이지적 접근은 하이패션에 대한 하위문화 스타일의 영향력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사이버펑크 스타일

사이버펑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소통과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급진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며, 현재를 미래로 전화시키려 시도하는 하위문화이다. 사이버펑크는 펑크와 달리 자신들의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적 스타일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사이버펑크는 사회변화의 시도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입체영상 의복을 사용하였다. 가상공간에서의 의복시스템은 기존 지배사회의 복식체계와는 전혀 다른 그들의 의식의 표출이며, 앞서의 펑크와 달리, 외형적 스타일에만 의존하지 않는, 가상공간은 그들만의 하위문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다. 사이버펑크들은 그들의 사상 못지않게 창조적이고 급진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계급이 붕괴된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나타낸다.

1990년대 초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펑크가 등장했는데, 각종 산업 폐기물에서 전유한 장식들을 브리콜라지 기법을 사용해서 가상적 미래적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사이버펑크의 스타일은 미래적 환상과 테크노 페티시즘(fetishism)의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타일은 페티시 스타일과 유사하여 검은 광택 가죽 드레스를 기본으로 하며,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입체영상 무늬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이 부착된 장갑, 커다란 고글에는 입체영상을 눈앞에서 합성하는 컴퓨터를 장착하였다. <그림 10>의 패션 사이버 펑크는 1994년 장 폴 고티에 작품으로서, 빅토리아 에브릴(Victoria Abril)이 키카(Kika)라는 영화에서, 이 전기로 조작되는 미래적 전투복을 입었다. 사이버 시대에 맞는 첨단적 미래주의의 도래를 예고하는 이복식은 메탈과 전기선들로 된 디테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주머니들, 헤드라이트 컵이 달린 브라, 지퍼달린 레깅스, 가죽과 고무로 된 손가락 없는 장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0〉 하이패션 사이버펑크
Jean Paul Gaultier, 1994, Hays, A. & Dingwall,
C. (1996). S.S.S. & S., p.126

IV. 결 론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은, 기존의 의미와 용도를 다른 의미와 용도로 파괴하고 변형시키지만, 어떤 사물이 단순히 전유되고 입혀짐으로서 스타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들을 응집적인 독특한 방식의 모양과 형태로 양식화(stylization)하여 집단 정체성이 부여되어진 것이다.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고립과 회피를 일삼는 하위문화 패션스타일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과거나 미래지향적 성향을 상징하는 시간회피 형으로서 사이키데릭, 라스타파리안, 레이버, 테크노 스타일들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유형은 자연에로의 회귀성향을 지닌 공간도피 형으로 서퍼, 포크, 히피, 뉴에이지 트래블러, 사이버펑크 스타일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은 기존 복식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하위문화 패션스타일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하위문화는 노동자계급의 정체성 갈등이 반영된 청년문화이며, 하위문화 패션스타

일이란 하위문화 성원들 안에 존재하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갈등적 성향들이 복식 스타일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패션 스타일은 지배 사회에 대한 삶의 저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속성인 기이함이 주는 충격은 기존 복식규범이 지배하는 복식의 유행체계에 중요한 생 재료가 되며, 그들의 현실을 강제하고 억압하는 지배문화에 대해 저항적일 수밖에 없는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연구의 중요성도 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이론적 분석 틀은 21세기에 등장할 많은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의 발생을 예시하고, 그에 따른 하이패션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며, 패션 트렌드의 예측에도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3). *Subcultures. Cultures and Class: A theoretical overview.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 edited by S. Hall et al. London: Routledge, p.10.
- 2) Ibid., pp.10-11.
- 3) 김창남 (1994).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실천에 대한 일 연구.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8-9.
- 4)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3). Op. cit., p.13.
- 5)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pp.90-91.
- 6) 이동연 (1999).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서태지 대중음악과 하위문화.* 서울: 문화과학사, pp.21-22.
- 7) Cohen, P. (1997). *Subcultural Conflict. Working Class Company. The subculture Readers.* edited by Ken Gelder & Sarah Thornton. London: Routledge, pp.94-96.
- 8) 이동연 (1997). Op. cit., p.279.
- 9) Haye, de la A. & Dingwall, C. (1996).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V&M Museum, p.3.
- 10) Cohen, P. (1997). Op. cit., p.95.
- 11)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3). Op. cit., pp.11-12.
- 12) Hebdige, D. (1979). Op. cit., pp.17-18.
- 13)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3). Op. cit., pp.35-54.
- 14) Ibid., p.56.
- 15) Polhemus, T. (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p.17.
- 16)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Routledge, pp.121-144.
- 17) Hebdige, D. (1979). Op. cit., pp.102-105.
- 18)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3). Op. cit., p.56.
- 19) Haye, de la A. & Dingwall, C. (1996). Op. cit., p.131.
- 20) Connikie, Y. (1990). *Fashions of a Decade: The 1960s.* London: Routledge, p.52.
- 21) 이정엽, 장호연 역 (1999). *대중음악사전.* 서울: 한나래, p.60.
- 22) Hebdige, D. (1993). *Reggae. Rastas & Rudies.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 edited by S. Hall et al. London: Routledge, pp.135-136.
- 23) Haye, de la A. & Dingwall, C. (1996). Op. cit., p.12.
- 24) Mercer, K. (1997). *Black Hair/Style Politics [1987] in The Subcultures Readers.* Op. cit., pp.420-424.
- 25) Takamura, J. (1997). *Roots of Street Style.* Tokyo: Graphic Sha, p.140.
- 26) Hebdige, D. (1979). Op. cit., pp.35-39.
- 27) 이정엽, 장호연 역 (1999). Op. cit., p.98.
- 28) Ibid., pp.311-312.
- 29) Haye, de la A. & Dingwall, C. (1996). Op. cit., p.129.
- 30) 이정엽, 장호연 역 (1999). Op. cit., p.173.
- 31) Haye, de la A. & Dingwall, C. (1996). Op. cit., p.13.
- 32) Polhemus, T. (1994). Op. cit., p.97.

33) 이정엽, 장호연 역 (1999). *Op. cit.*, p.343.

34) Polhemus, T. (1994). *Op. cit.*, p.40.